

Autostadt _ Volkswagen in Germany



폭스바겐 공장



Group Forum_Welcom Desk



Car Tower

- Autostadt 테마파크

볼프스부르크에 위치.
4억3000만 유로 (한화로 약5,700억)에 달하는 투자
금액으로 2000년 5월31일 설립됨.

폭스바겐의 출고장, 고객센터, 전시장, 박물관, 지역
커뮤니티 등의 역할을 함.

- Autostadt 설립배경

1990년대 독일 통일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
률 17.9%까지 치솟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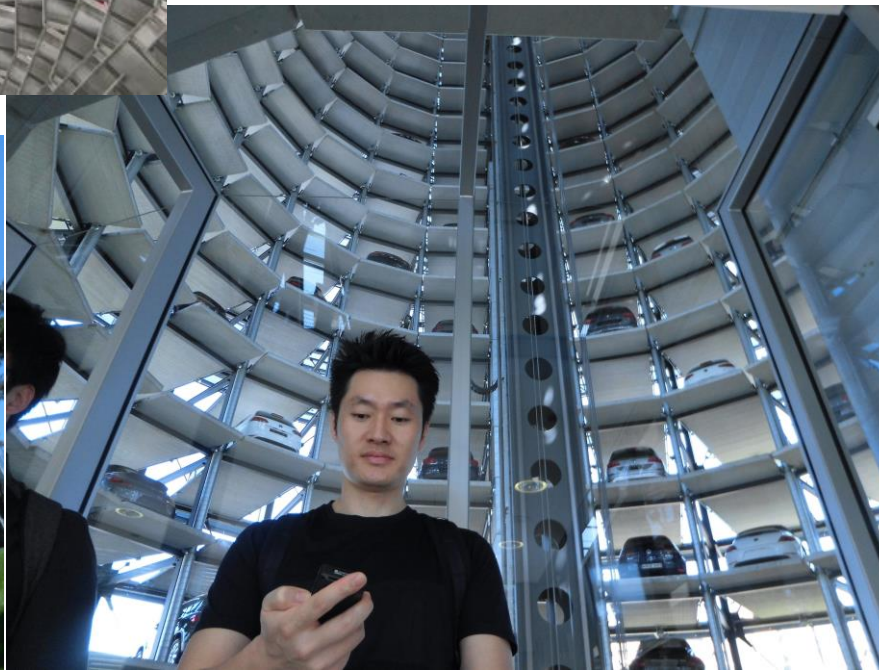
국가 경제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아우토슈타트 설
립. 따라서, 일자리 창출, 지역경제 발전과 함께 폭스
바겐 성장계기가 됨.

그리하여, 볼프스부르크는 1인당 GDP가 9만2천600
유로로(약12만3천달러)로 독일에서 가장 높다.

Autostadt _ Volkswagen in Germany



Car Tower 내부



-Car Tower

차량이 입출고되며,
인도 전 차량 보관되는 Car Tower는 이곳의 최대명
소로 자리잡음.
투명 유리로 된 48m높이의 Car Tower안에는 400
대의 신차가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.

24시간내에 인도가 가능하며, 일반 딜러점을 통하는 것
보다 탁송료를 약950유로(약141만원)정도 아낄 수
있다.

Autostadt _ Volkswagen in Germany



Customer Cente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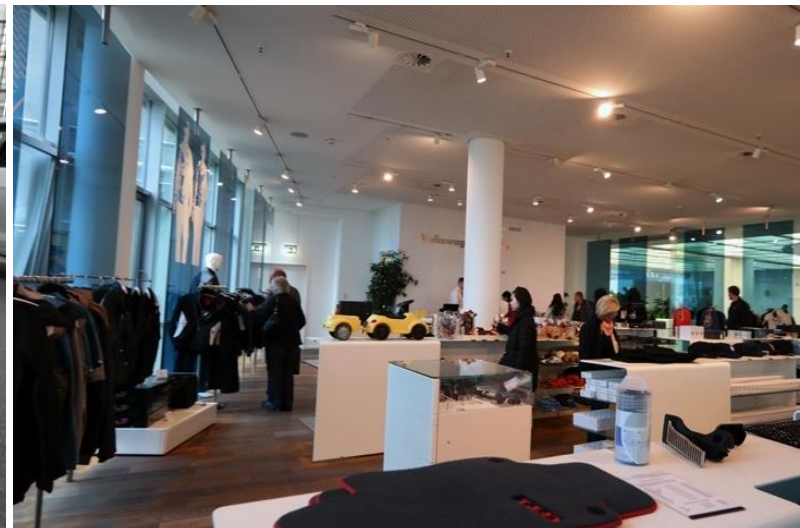
-Customer Center

출고센터, 구매상담센터, Gift Shop, 레스토랑 등으로 이루어 짐.

출고준비 완료된 차량은 전광판에 고객명, 출고시간을 확인한 후
1층 차량검수후 출고한뒤 테스트 주행과 기능을 익힐 수 있다.



2층 전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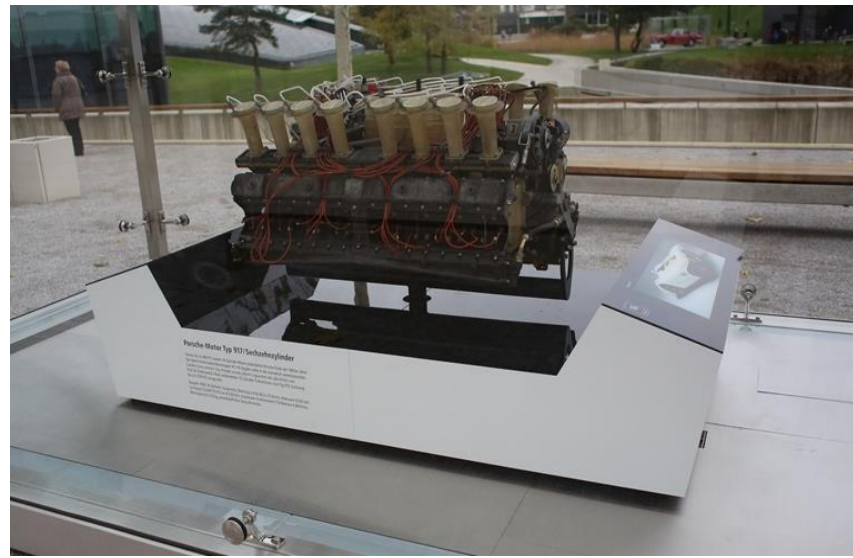


Gift Shop

Autostadt _ Volkswagen in Germany



Zeithau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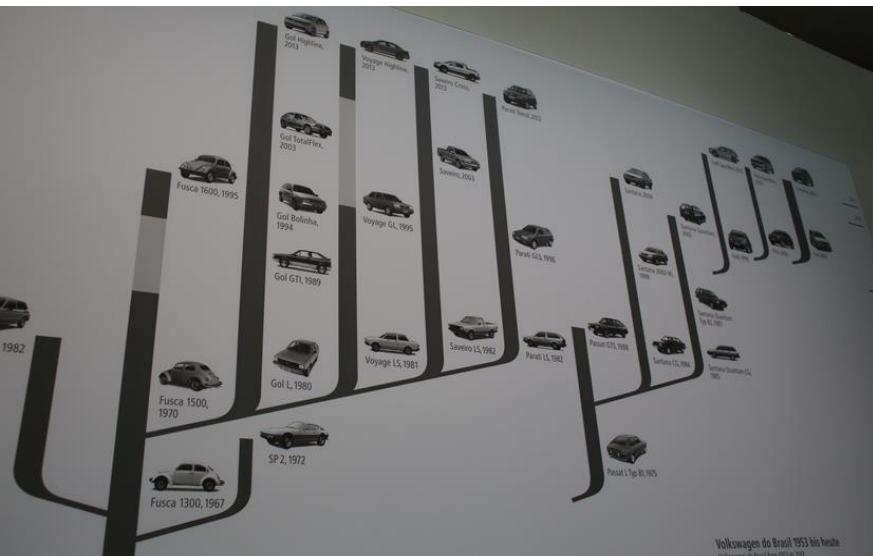


입구에 전시된 엔진

- Zeithaus

"시간의 방"이라는 의미로 폭스바겐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것들을 접할 수 있음.

"자동차 박물관"으로 폭스바겐 외에도 벤츠, BMW, 혼다 등 다른회사 차량까지 전시 되어있음.



폭스바겐 대표하는 차종 전시

Autostadt _ Volkswagen in Germany



Porsche Pavilion



Audi Pavilion



부가티 베이론

- Porsche, Audi Pavilion

디자이너Henn이 Porsche특유의 곡선미 라인을 살려 디자인하여 건축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평을 받음.

포르쉐, Audi뿐만 아니라, 자회사인 람보르기니, 부가티, 세아트, 스코다의 전시동이 각각 따로 마련되어 있음.

특히 **Premium ClubHouse**에 가면, 부가티 베이론 1대만이 전시 되어 있음. 건물내부의 조형물들과의 조화로움을표현하기 위함 이라고 함.

Autostadt _ Volkswagen in Germany



Autostadt



-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적용 Point (GBC)
- 기업 이미지 개선
- 서울의 랜드마크
-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



양재사옥



한전부지



GBC 조감도